

#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이 상 림**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1955년 5월 서울 생  
한양대학교 건축과 졸업(1978년)



### 처음에는 의사가 되려고 하다

처음 대학시험은 의대로 지망했습니다. 아버님도 의사이고 해서 의대에 가려고 했으나 안 되었고, 2차도 한양대 의대에 가려고 했는데 안 돼 2지망으로 건축과를, 3지망으로 물리과를 선택했는데, 건축과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저 아무 준비 없이 건축과에 가게된 것이지요. 당시 학과 이름이 '건축의장과' 였는데 이름이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 건축과에 적응하고 ROTC로 군 생활을 마칩니다

후회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는데, 당시 총장은 김연준 선생이었지요. 말씀 중에 우리는 신입생수가 많다. 그래서 유리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질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숫자로 승부한다는 발상에 말이지요. 그 당시 심정은 나라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실망, 좌절, 회의 등 참담한 심정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제가 처한 현실에 충실하고자 생각하였으며 그런대로 건축과에 적응을 잘했습니다. 건축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 스스로 좋다고 저 자신에게 세뇌하고 4년을 지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유신으로 휴교하고 할 때는 학교에 대한 기대가 없었을 때이고, 2학년 후반기부터 마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OTC에 지원하면서 더욱 마음이 안정되어갔지요.

### 어린 시절, 와룡동에 살았을 때부터 공간사 사육이 눈에 들어오다

막연하게 설계가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당시 살던 와룡동과 현재의 공간사 건물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 자주 지나다 니면서 당시 TBC, 국악전수원, 가든타워 등의 건물이 있을 때인데, 공간사 건물이 눈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60년대 후반 중학생 때 건축가라는 명칭도 처음 접했습니다.

### 군제대 후 공간사에 어렵게 들어가다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가게 되었지요. 전방 1년 있으면서 소대장, 작전통제관 등을 역임하고 '50미터 박살 띠' 즉 장애물 없애는 작업 등을 위한 파견장교로 상주했고 후반에는 신병교육대 교관으로 있다가 78년에 제대했습니다. 군입대 전 삼성, 대우 두 회사에 동시 취직 한 상태에서 군 입대를 한 터라 제대 후에도 취직 걱정은 없었지요. 당시 건설사들은 중동 불이라 취직하면 중동가기 십상인데 중동으로 가기 싫어 설계하려고 했어요. 당시 대우에는 김종성 선생이 이끄는 동우건축이라는 설계조직이 있었습니다. 동우건축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사 문을 두드렸지요. 당시 공간사에는 류춘수, 김남현 선생 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당장 채용이 어렵다 하여 기다리다가 김기석 선생이 하는 아람건축에서 일하게 되

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이 정동교회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81년 5월 한 달간은 상지건축(대표 김춘웅)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81년 6월 1일 공간사에 한국 정치계의 유력자에게 도움을 청해 마지막 강수를 두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습생 하나 쓰라는 명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인터뷰 당시 김수근 선생이 제 이력을 보더니 '아니? 실습생이 아니잖아!' 하시더군요.

### 당시 공간사는 소장별 팀제로, 장세양 선생 팀에 속하게 되다

당시 공간사는 소장별로 나뉘어 있었는데 저는 김원석 선생과 인터뷰한 후에 김평일 실장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입니다. 그리고 신연학, 장세양 실장 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후 각 소장별로 책임경영 할 때인데 1에서 7소까지 있었습니다. 1소부터 김남현, 홍순본, 우시용, 류춘수, 김평일, 장세양, 신연학 등의 소장체제였습니다. 이 체제로 김수근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운영되었습니다.

6소 소장이 장세양 선생이었는데, 여기에 속해있으면서 한 일이 춘천향토공예관, 벽제화장장 등입니다.

### 김수근 선생 돌아가신 후 호주로 유학가다

1986년도 김수근선생 별세 후에는 공릉사옥에도 출, 퇴근 하면서 지내다가 1989년 말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뉴시우스웨일스대학 대학원으로 갔지요. 가기 전에 건축사시험을 보고 갔는데 합격은 이미 예감을 했고, 1990년 2월 22일 합격 발표가 났는데,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 유학마치고 다시 공간사 복귀, 장세양 선생과 일하다

91년도에 귀국해 장세양 소장 밑으로 다시 들어갔지요. 당시 송호상 소장은 TSC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막 독립한 상태이고, 와 보니 장세양 선생이 공간을 떠맡아 운영하고 있고 정종영, 민경식 소장이 있었습니다. 파트너 제를 하기로 하고 장세양 선생 외에 3인의 디자인파트너(정종영, 이상림, 민경식) 그리고 경영을 맡을 박영호 전무 이렇게 5인의 사령탑이 공간을 맡아 운영하는 체제였습니다.

### 장세양 선생 타계 후 공간을 떠맡다

이 체제로 96년까지 가다가 갑자기 장세양 선생이 타계한 후 한 달 간 정종영 소장이 대표대행을 하고 1996년 10월부터 제가 공간 사령탑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장선생 타계 전에 제가 우연히 어느 자리에서 만약 장선생 유고시에는 회사가 어떻게 되냐를 말한 적이 있는데 다들 기겁을 하더군요. 막상 장 소장께서 타계하니 막막하였고 유족들의 요구도 있고 하니 다들 피

처음 사무실차려서 20년 후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려  
 일단 열기로 작정했다면 배수의 진을 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전문해보고 되돌아보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선배 건축가님들의 앞모습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뒷모습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말이지요.  
 쉬운 면, 좋은 면만 보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형 사무소와 작은 사무소의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하기에 따라 큰 사무실로 갈수도 있고, 결국 본인들의 희망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려고만 하였고, 박영호 전무는 문공부 출신인데 아주 조용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박전무는 공간지만 말고 3명이 공간건축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선생 유족들의 요청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특히 김수근기념관과 같이 장세양기념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답변 할 수가 없었지요. 할 수 없이 제가 나서 이런저런 뒤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은 일들을 도맡아 하다 보니 제가 사령탑을 자연스레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선생 생존 시 착공을 한 공간신사옥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무척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완성시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IMF가 터졌는데 우리는 차라리 타격이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관공서 일들이라 말이지요. 단지 민간 부문 일들은 다 연기되거나 취소된 일들이었습니다.

#### 공간에서 부산 삼성병원, 산업기술대학교의 작업을 담당하다

잠수고 지나면 좌측에 있는 녹색으로 된 우진빌딩, 부산 삼성병원, 산업기술대학교 등은 파트너 소장일 때 본인 이름으로 직접 발표되었던 것들입니다.

대표가 된 후 한 일들을 꼽으면 용인시청사(2006년), 일산아트센터(2002년), 부산운동장(2002년 준공,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광명경륜동(2006년), 서울중앙우체국(2008년), 달성군청사(2005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등 입니다. 해외프로젝트로는 앙골라컨벤션센터(2007년, 15,000㎡), 손양골 본사사옥(2008년 준공, 4만㎡), 카자흐스탄 파크뷰오피스(2008년 준공, 12,000㎡) 그리고 뉴타운 및 신도시프로젝트 등 입니다.

#### 유네스코 석좌교수가 되다

유네스코총회 시 강진군(康津郡)을 본부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강진이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를 소개하고 세미나와 전시회를 개최하여 그들에게 청자와 다산(茶山) 등을 소개하였는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유네스코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아시아에 소외된 역사지구에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석좌교수직을 받았습니다.(Social sustainability in historical districts)

#### MAXMIX

몇 년 전 대한민국건축제 주제로 맥스믹스라는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맥스믹스는 행정복합도시 아이디어공모전에 응모할 때 만든 제목으로 그때부터 저의 화두로써 모든 작업을 할 때 주제가 되는 단

어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UIA에서 시행한 CCIII라는 국제공모전의 주제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대 조직으로 키우다

국내 전체 직원은 530명(설계 350명, 감리100명, 관리80명)이고 해외는 100명인데 앙골라, 두바이, 카자흐스탄, 알제리, 필리핀 등지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 2010년이 공간 창립 50년

장점이자 약점일수도 있는데, 소위 오래된 전통으로 2010년이면 50주년이 됩니다. 우리는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활동을 겸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무실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여질 듯 싶네요. 작품 대할때도 다른 시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점이 바로 오래된 전통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속박한다고 봐야지요. 올해는 50주년을 맞아 공간을 거쳐 간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Net Work'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건축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분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되리라 봅니다.

#### 건축설계만 전념하기보다 사회평판을 고려하게 된다

역시 다양한 문화활동과 더불어 설계조직을 운용하기에 설계만 전념하는 회사처럼 이것저것 무시하고 달려들 수만 없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평판을 고려해야한다는 말입니다.

#### 공간지 발행은 적자가 나도 계속한다

아니 적자입니다. 그리고 잡지발행은 제가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단순설계조직과 다르게 봐주는 면과 문화계와 접촉하기에 많은 정보 주고받고 하니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기타 공간학생상, 국제 판화제 등의 행사도 계속할 것입니다.

2001년도 공간지 400호 때부터 공간지 웹진으로 'vmospace.com' 주소로 론칭 했습니다. 실내건축상을 개설했는데 당연히 국제전이구요. 공간지는 탐슨 로이터에 등재되는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SCI, AHCI 등 두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공간지는 AHCI카테고리에 등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큰 영예입니다. 사실 학회지도 아직 등재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학생전은 외국학생들의 참여가 계속 늘고 있고 2007년에는 대상수상자가 독일학생이었습니다. 실내건축상 대상수상자는 태국학생이었습니다. 결국 국, 내외 학생들의 참여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작년 7월 공간지 500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전문지가 처음으로 지령 500호를 맞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었으며 공연과

## 인터뷰 후기

이상림 건축사가 공간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던 어느 날 그가 공간의 대표가 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공간이 한참 어려울 때이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허인 때였다. 당시 이미 류춘수, 송효상 등의 건축사가 공간대표를 맡다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 장세양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줄지에 쓰러지고 난 뒤라 나는 그가 공간의 사령탑을 맡게 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상림 대표를 걱정하는 마음에 엽서를 보낸 적이 있다. 기억이 가물거울하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변압기에 적정량 이상의 전압이 흐르면 변압기가 타버립니다. 자중하세요." 라는 공간사 대표를 말지 말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시하여 보낸 적이 있다. 지금 보면 그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훨씬 대용량의 변압기였던 것인데 내가 간과한 것이다. 어쨌거나 고아한 이미지의 공간사를 현재는 수주를 잘하는 대형조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는 대단하다. 대조직의 위상에 걸 맞는 명실상부한 건축사로서의 자리매김이 병행되어야만 하는 무거운 과제가 그의 어깨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최동규 건축사지편찬위원회 위원장

전시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 설계에만 전념하고자 전문경영인이 운영을 맡고 있다

제 욕심은 설계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점입니다. 저의 한계를 느꼈고 이런 많은 인원들을 관리, 세무처리, 인사관리 등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경영이며 금융기법이니 등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운 좋게도 와튼스쿨 MBA출신의 인사가 있어 제가 부탁했지요. 마침 김수근 선생의 고교 후배이기도 해서 다행히 이를 수락해주었고, 현재까지 잘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 파트너십으로 하다가 오히려 일인체제로 하고 있다

1991년 부터 1996년까지는 파트너십으로 하다가 거꾸로 일인체제로 해오고 있는데요. 후계구도는 시험 중이라고나 할까요. 앞으로 파트너십을 포함한 여러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05년도에 미국건축가협회에서 'Hon.FAIA' 를 받을 때 그 다음해는 마침 김수근 선생 20주기 장세양 선생 10주기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미묘한 시기였는데 시험 삼아 안식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후계구도 및 장래운영 체제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장래 파트너가 될 사내 인재를 무궁무진하다

광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문장도 있고 사장급 중에도 있고요. 소장, 부소장, 팀장 중에도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해외설계 비중이 50%가 된다

국내설계와 해외설계 비중이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는 2000년 들어오면서 우연하게 아프리카 앙골라에 있는 삼성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양골이라는 국영회사의 일을 하는데 설계자로 동참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안 만들어주고 오히려 삼성은 사정상 빠지고 저희만 직접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아프리카 지사장의 공로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비전시티 등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앙골라에 와보니 내전이 종식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석유와 다이아몬드 등 지하자원이 많고 할 일이 많더군요. 그런 측면으로 찾아보니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두바이,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리비아 등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먼저 가서 타진해보고 일들을 추진한 것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회사는 단순히 노동력이 싸다고 해서 실시설계나 하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고 해외에서 달러로 수금하니 이를 달러로 소진

할 방도를 찾다가 공리한 방편입니다.

### 사무실을 차린 후에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라

저는 상당히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모든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 사무실차려서 20년 후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고 일단 열기로 작정했다면 배수의 진을 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자문해보고 되돌아보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건축가님들의 앞모습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뒷모습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말이지요. 쉬운 면, 좋은 면만 보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장래 비전

해외의 여러 국가도 경기 사이클이 있듯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듯 경영하려 합니다. 공간건축사무실은 건축의 고전적인 의미의 설계를 고수하고 공간도시는 단지계획, 주택설계, PF사업 등의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된 일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간사육에 박물관, 전시장, 건축과 관련된 교육기관 병설하는 일도 하고 싶구요.

### 빌딩 스마트 코리아의 회장이 되다

급변하는 건축계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BIM의 등장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활동하던 단체가 2008년 창립 총회를 거쳐 2009년 국토해양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합니다. 오는 4월 21일에는 국제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 합니다. 해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찾아와 BIM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직을 맡다

2007년 11월 한국건축가협회 50회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뒤 2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지난 2월 제27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관련 단체들과 공조하여 국제적 시각에서 회원들의 입장과 공공의 역할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협회를 운영하려 합니다.

### "생각대로 한다"가 나의 좌우명

어릴 때 생각은 "생각대로 한다"입니다.

지금은 "생각대로 간다"입니다.

한국건축계의 문제는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대형사무소와 작은 사무소의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하기에 따라 큰 사무실로 갈수도 있고, 결국 본인들의 희망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